

이재명, 총선 공천 파동에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어”

“변화에 소리가 날 수밖에...조용한 공천은 검은 백조와 같아” “공천 논란은 국민의힘이 더 심해, 언론 왜 여당만 엄호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근 불거진 공천 파동과 관련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나오지만 변화해야 적응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결하고 혁신적인 후보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그대로 운전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쫓아 넣는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을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1년 전에 특별 당규가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 평가가 있

다”며 “그 평가와 새롭게 구성된 기구들의 긍정적인 평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 시스템은 다 갖춰졌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언론을 향해선 “공천을 받으면 ‘진명’이 되고 공천에서 탈락하면 반명·비명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되어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방을 들어서야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공천으로 인한 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하다”면서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등 엄호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한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컷오프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변화에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조용한

변화라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와 같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이 끝나면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후보들이 어떤지 비교하게 되실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을 찍어서 지금의 국정난맥이 계속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로 이 무도한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더 나은 사회로 한 발이라도 앞서갈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쯤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로,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지만 본질을 지켜봐달라”며 “국민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진중하게 선택해줄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



다. 그는 “새로운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총선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뒤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운명을 결

정하는 이번 총선에 현명한 눈으로 임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심판하고 해안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좋은 인재 후보를 골라달라”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곡성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최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곡성군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곡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

리계획안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과 약속했던 큰 그림들이 구체적인 결실이 되고, 현장 목소리가 정책이 되어 탄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로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국민의힘, 광주 총선 필승 결의대회 ‘전면 취소’

부산 등 공천 남아있어 선거전략상 고민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전국 첫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선거 전략상 전면 취소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필승 결의대회는

‘광주·전남 국민 희망의 길’ 행사를 추진하려다 취소했다.

당 지도부는 부산 등 다른 지역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선거 전략상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선거 전략상 부득이 변경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첫 번째로 광주에서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바깥말이를 시작해 4월 10일 선거까지 이어 간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광주 선거구 8곳 중 현재 6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동남갑에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 시건축사회장, 동남을에 박은식 전 호남대 안포럼 공동대표, 서구갑에 하현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를 당협위원장, 북구를에 양종아 한샘클래식 대표, 광산갑에 김정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광산을에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사장이 출마한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